

# 진도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실현’ 한걸음

민선8기3주년  
공모사업비 확보 2년 연속 1천억 돌파  
농어촌버스 무료·소아청소년과 개설 등  
공약 100건 중 79건 완료…전국 평균 ↑

진도군이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진도’ 실현을 위한 주요 군정 성과를 발표했다.  
14일 진도군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산업·복지·관광·교육·행정 등 5대 분야의 고강도



사업에서 총 2천871억원을 확보하며, 창군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1천억원 이상을 돌파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700억원) ▲전남형 균형발전사업(300억원) ▲전남형 만원주택 조성사업(200억원) 등이 포함돼 지

혁신을 바탕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공모사업비 확보 실적이다. 진도군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와 전남도가 주관한 133건의 공모사업에서 총 2천871억원을 확보하며, 창군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1천억원 이상을 돌파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700억원) ▲전남형 균형발전사업(300억원) ▲전남형 만원주택 조성사업(200억원) 등이 포함돼 지

역개발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21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서 2023·2024년 2년 연속 2등급을 받았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마’ 등급에서 2년 연속 ‘가’ 등급으로 올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약이행평가에서도 군 최초로 2년 연속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으며, 재정집행평가, 정부합동평가 등에서도 상위권으로 도약했다.  
기관 표창 성과도 두드러졌다. 지난해에는 49건을 수상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행정 분야 최고 영예인 다산목민대상 본상을 군 최초로 수상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보배진미쌀이 진도 최초로 ‘전

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되고, 공공비축미 특등비율도 광주·전남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해결로 물김 위판액 역시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복지 부문에서는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관매도 직항 여객선 건조 추진, 소아청소년과 개설 등 정부 여건 개선이 이뤄졌다.  
교육 분야는 입학축하금, 고교생 해외문화탐방, 화상영어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됐으며, 교육 예산은 2021년 대비 2배 늘어난 44억원으로 확대됐다.  
관광·문화 분야에서는 문화도시 선정(200억원), 사계절 꽃피는 진도 조성, 진도꽃게축제 재

개 등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했다. 체육 분야에서도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해 50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  
생활 밀착형 행정 개선도 속도를 냈다. 민원인 전용 주차장, 배송도우미제, 화전교차로 등 교통·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민선 8기 공약 100건 중 99건을 완료해 전국 평균 완료율보다 26% 높은 이행을 기록했다.  
김희수(사진) 진도군수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도 18호선 기점 변경, 호남고속철도 진도 연장, 서마항 확장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 무안군, 청년 마음 치유 ‘온기우편함’ 설치

북향문화센터·청년플랫폼 2곳

무안군은 14일 “청년들의 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해 사단법인 온기와 손잡고 무안북향문화센터 1층과 무안군 청년플랫폼에 ‘온기우편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온기우편함은 청년들이 익명으로 작성한 고민 편지를 넣으면 자원봉사자가 직접 손 글씨로 답장을 적어 우편으로 보내주는 정서지원 사업이다.  
사단법인 온기는 사회 구성원의 우울감 완화, 정신 건강 회복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 현재 전국 84곳에 온기우편함을 설치해 운영 중

이며 전남도 지자체 중 청년센터 내 우편함을 설치한 곳은 무안군이 유일하다.  
김산 무안군수는 “온기우편함이 청년들이 고민을 편안하게 털어놓고 정성 어린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마음을 표현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꾸준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엔 설치된 온기우편함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061-450-5734)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김상호 기자

## 완도 금일읍사무소 42년 만에 새 단장

52억 투입…주민 휴게 공간 등 조성

완도군은 “최근 금일읍사무소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해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신의준 도의원, 김양훈 완도의회 의장, 완도군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금일읍민, 재경·재광 향우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금일읍 청사는 1983년에 건립, 노후화로 2018년 정밀 안전 진단 점검 결과 신축이 필요한 D 등급을 받았다.  
이후 완도군은 지난 2020년 청사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4월 착공, 1년2개월 간의 공사를 마치고 42년만에 신청사가 준공됐다.  
총사업비는 52억원이 투입됐으며, 신청사는 부지면적 3천476㎡, 건축면적 9948㎡, 연면적 1천136.76㎡,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1층은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 2층은 다목적실, 주민 휴게실,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과 소통하는 공간,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신우철 군수는 “금일읍 신청사는 행정 업무 공간을 넘어 읍민과 소통하고 머무를 수 있는 열린 청사로 조성됐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 ‘연꽃 만개’ 해남공룡박물관, 특별한 여름 풍경 선물

물놀이 체험장 운영도

해남공룡박물관 연못에 연꽃이 만개해 박물관을 찾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여름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박물관 입구 앞 연못은 해마다 여름이면 연꽃 위로 우아하게 피어난 연꽃과 푸르른 잎들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풍경을 연상케 하는 곳으로 산책을 즐기거나 사진을 찍기 위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연못 인근에는 물에서 살았던 어룡을 비롯해 대형 공룡 조형물들이 곳곳에 설치돼 공룡시대의 호수에 들어선 듯한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해남공룡박물관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이달 초부터는 어린이 물놀이 체험장을 개장해 운영하고 있어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었다. 시원한 공룡시대로의 탐험을



떠나는 공룡박물관 관람 후 물놀이 체험, 공룡 연못 탐방까지 세 배 더 즐거운 박물관의 여름을 선사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연못에 핀 연꽃은 자연과 공존하는 공룡시대로 떠나는 박물관의 매력을 상징한다”며 “전시와 체험, 자연경관 그리고 여름 물놀이까지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해남공룡박물관에서 특별한 여름 추억을 만들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가보고·머물고·살고 싶은 영암’ 전략 통했다

지나해 생활인구 300만 돌파

축제 등 지역 이벤트 효과 ‘독특’

영암군이 ‘가보고 싶은 영암’ 전략으로 2024년 한 해 생활인구 300만명을 넘겼다.  
14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24년 4분기 생활인구 통계’에서 영암군 등록인구는 6만1천여명이고, 생활인구 유입은 303만명 수준이었다.  
특히 4월 왕인문화축제 개최, 8월 월출산기찬랜드 운영, 10월 국화축제 기간을 전후로 생활인구가 집중 증가했다.  
이중 지난해 8월 생활인구는 30만5천54명으로 등록인구의 4배에 달하는 최대치를 기록해 축제 등 지역 이벤트가 생활인구 유치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1·2·12월에는 생활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었고, 12월 기준 생활인구는 24만2천명으로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영암군은 이통계가 생활인구 유입 구조가 축제·농업·관광 등 계절 요소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로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연중 안정적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가보고 싶은, 머물고 싶은, 살고 싶은 영암’을 기치로 세운 ‘단계적 생활인구 전환 전략’의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가보고 싶은 영암’ 핵심 전략은 통계로 검증된 관광·축제 활성화다. 영암군은 대표 축제인 영암왕인문화축제, 월출산국화축제, 지난해 첫 개최된 한옥문화비엔날레와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를 전국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머물고 싶은 영암’을 위해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와 위케이션센터 조성의 속도를 높이고, 장기 체류 귀농·귀촌 프로그램, 농촌 체험, 방문객

재방문 유도 사업, 삼호읍 외국인특화거리 조성 등도 추진 중이다.  
‘살고 싶은 영암’으로 정주인구 유치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전입 지원금, 초·중·고·대학생 입학축하금, 이사 비용, 이사안심사업 등으로 정주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는 영암군은 공공주택 공급, 지역활력타운 조성, 미래형 농촌공간 정비 등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섰다.  
아울러 영암군은 ‘생활인구 50만 캠페인’, 디지털 영암군민증 발행 등 홍보로 지역사회에 생활인구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영암을 찾는 곳에서 머물고 살아보는 곳으로 바뀌어나간다”며 “연 생활인구 300만명을 기반으로 월 생활인구 50만을 달성하고, 이들이 정주인구로 살아가도록 인구정책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 기자



목포시는 최근 버스터미널 교차로 일원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버스 친절·안전 운행 캠페인’을 실시했다.

〈목포시 제공〉

## 목포시, 공영버스 ‘친절·안전 운행’ 캠페인

출근길 시민 대상 홍보 활동

목포시는 “최근 버스터미널 교차로 일원에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버스 친절·안전 운행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올해 새롭게 출범한 목포시

지역 공영버스와 위탁공영 운영사인 목포비티에스(BTS) 운수종사자, 시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영버스 이용 활성화 ▲‘친절·안전·봉사’ 피켓·어깨띠·현수막 활용 홍보 ▲법규 준수 및 안전 운행 다짐 구호 제창 등을 통해 공영버스 서비스

향상과 안전 운행 실천을 약속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공영버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롭게 시작된 공영버스가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친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확대,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버스정류장 정비 등 쾌적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지속 추진 중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 강진, 한우 유전체 검사로 ‘고급육 생산’

100농가 1천500두…현장 컨설팅 병행

강진군이 한우 유전체 검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고급육 생산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강진완도축협,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한우 유전체 검사는 송아지와 암소의 DNA를 분석해 육질등급, 성장능력, 번식능력 등 주요 유전 형질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1+ 등급 가능성이 높은 개체는 집중 육성하고, 저능력 개체는 조기 도태하거나 비육형으로 전환해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강진군은 2023년부터 매년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 유전체 검사와 현장 컨설팅을 병행해왔다. 최근 3년간 총 4천200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군비 8천100만원을 포함한

돕고 있다.  
50두 규모의 한우를 사육 중인 한농가는 “값에 의존하던 선별 방식에서 벗어나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선택이 가능해졌다”며 “우수 개체에 집중하고 관리비도 절감하는 등 효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고급육 생산 중심의 체계를 구축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강진 한우를 전국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 기자



강진한우 경매장에서 으뜸 송아지(혈통우)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강진군 제공〉